



남원소방서, 보절초 학생 대상 화재안전교육

남원소방서는 지난 8일 보절초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안전수칙에 대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화재 대피 이론 설명 후 학생들은 직접 대피 행동요령을 따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 방법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교육 내용이 강조돼 참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으며, 남원소방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화재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피 행동은 반복된 훈련과 실습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소방서,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안전컨설팅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는 최근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병원의 파난대책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한 뒤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대피계획,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병원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종욱 김제소방서장은 “병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임실 덕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덕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8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 주민자치 자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며,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다가오는 7080 소풍가는 길 행사에 동아리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임실=전충영 기자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서 ‘장려상’ 수상 영예

전북대 정치외교 학생들, 지역 특화산업 연계한 ‘1등 학과’ 육성 정책 제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2025년도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기존의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과정’을 올해부터 한 단계 격상해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8개 팀이 지원, 서류 심사를 거쳐 전북대 ‘대붕’을 포함한 16개 팀이 참가자로 선정됐다.

‘대붕’ 팀은 정치외교학과 김규리, 빙기준, 이영재, 이지민, 정아은 학생과 사회과학계열 권남혁, 김병찬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헌법 개정,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 주요 대학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1등 학과’를 집중 육성해 지방의 교육과 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팀장을 맡은 이영재 학생은 “지방소멸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주의적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현장 구급대원, 전문소생술 역량 강화 교육

고창·순창·정읍소방서 구급대원 139명 대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고창과 순창 정읍 소방서 소속 현장 구급대원 139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SALS: Smart Advanced Life Support)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스마트 의료지도를 활용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지도의 사용과 구급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히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하여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영상 통화를 활용한 전문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구급대원의 현장 처치 능력과 의료지도 의사와의 실시간 소통 능력 등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창과 순창 정읍 소방서는 올해 6월부터 정식으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으로 이날 교육에서는 소속 구급대원 139명이 총 9회에 걸쳐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 처치 능력을 향상시켰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앞으로도 SALS 교육을 통해 지



역사회 구급의료체계 고도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전북 전 지역 소방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중이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119구급대와와의 실시간 의료지도를 통해 보내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의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2022년 8.0%였으나,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4년 전북소방본부에서 집계한 자발순환회복률은 14.7%로 크게 상승했다.

사업 이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현장 응급처치 역량이 크게 개선됐고, 지역 중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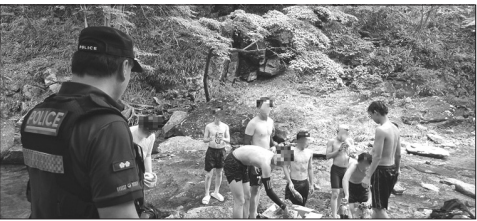


장수경찰서,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 교육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9일 장수군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 범죄예방환경 조성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량충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어르신들이 평소 느끼는 범죄 불안 요인, 주거지 주변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결과는 향후 범죄예방 디자인(CPTED) 및 지역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범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자주 받는 의심 전화 유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팔덕파출소, 강천산 계곡서 학생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팔덕파출소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강천산 계곡을 찾은 순창A중학교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팔덕파출소는 강천산 계곡을 찾은 행락객과 학생들에게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위험지역 출입지제 △보조자 동반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팔덕파출소는 “학생들의 즐거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팔덕파출소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강천산 계곡 등 관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수칙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진안군 백운면지사협, 3차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9일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2차 실적 보고와 백운면 협의체 특화사업 운영 세부 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고독사 예방교육’ 주민홍보 방법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추진되는 고독사 예방 교육은 매년 주민에게 필요한 강의 주제를 정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폭력 예방 교육에 이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